

# 서 평

배 홍 식\*

Edmond Malinvaud, The Theory of Unemployment Reconsidered, Har-  
ted Press, New York, 1977.

고급미시경제학 교과서인 Lectures on Microeconomic Theory(1972)의 저자로서 더 잘 알려진 Malinvaud의 The Theory of Unemployment Reconsidered는 케인즈의 실업이론을 일반균형이론과 결합, 수정 발전시키는 소위 신케인즈학파(neo-Keynesian school)의 주요한 고전적 초기 저서로서 이후의 학문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었고 현금의 우리나라의 실업문제에 커다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노동경제학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한 대규모의 실업의 원인을 설명하려는 이론으로서 두 갈래의 상충되는 이론체계가 존재하는바 고전학파는 임금이 너무 높아서 기업이 이용가능한 노동력 전체를 고용하는 것이 극대이윤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주장인 반면에 케인즈학파는 재화에 대한 유효수요가 너무 적어서 노동력의 초과공급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덜 신축적인 가격과 배급제도를 갖는 경제의 균형에 대한 연구가 이러한 두 이론의 타당성을 새로이 이해하는데 기초를 제공하는 것은 자명하다.

본 저서는 세계의 장 또는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장에서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이론적인 기초를 논의한다. 제 2장에서는 총수요관리 또는 가격 및 소득통제 등의 단기 정책의 서로 다른 영향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아울러 케인즈적인 또는 고전학파적인 실업대책이 적용되기 전에 대량실업현상이 정확히 진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제 3장에서는 장기 경제전략과 관련하여 케인즈적 실업이 고전학파적 실업에 비하여 발생빈도가 많은 이유를 분석하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유향파동이래 당시의 서구경제의 상황이 오히려 고전학파적 실업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핵심적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 1장의 이론의 구성요소( elements for a theory )에서는 우선 케인즈이래 알

\* 延世大學校 經法大學 教授

려진 바와 같이 실업분석을 위하여는 일반균형이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쾌히 지적하고 있다. 즉 실업현상이 노동시장에서의 초과공급현상이라는 점에 착안하는 부분균형 분석은 유용한 분석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분균형분석에서 초과공급으로 임금이 하락하면 이것이 재회시장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결국 노동시장의 수요 및 공급곡선의 이동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일반균형의 개념과 관련하여 각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일치를 견제하는 고전적인 왈라스체계의 확장을 주장하며 R.J.Barro and H.L.Grossman 의 “A General Disequilibrium Model of Income and Employment”(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71)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균형 분석(disequilibrium analysis)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하여 반대의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불균형분석이 동태분석이 되지 못하고 성공적인 동태분석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제이론발전단계에서는 균형개념의 수정, 확장이 오히려 바람직스럽다는 것이다.

이어서 단기에서의 가격경직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시장의 수급상황에 신속히 반응하리라는 고전적인 이론은 현대 조직사회의 단기 거시경제분석에 더욱더 부적합하다는 것인바 농산물이나 원료가격은 단기에도 신속적이라고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의 가격이나 임금을 등은 단기에서는 신속성을 보이지 못하고 장기에서만 가격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수급상황의 변화는 가격변화 이전에 주문, 재고, 인도일, 산출량, 노동시간, 고용등의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어서 결국 수급변화는 우선 수량조절로 나타나고 상대가격의 변화는 나중에 그리고 덜 명확한 방법으로 나타난다. 단기수량조정이 단가가격조정에 비하여 훨씬 더 명백하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요인이 단기균형이론의 설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격의 경직성은 비대칭적이어서 하방경직성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생산시설이 거의 완전히 이용되는 때에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거의 자발적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단기적인 가격경직성에 기초하여 J.Hicks(Capital and Growth, 1965)는 가격과 임금이 외생적 또는 자발적이라는 데에 착안하여 IS-LM모형으로 더 잘 알려진 불변가격이론(fix-price theory)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배급하의 균형(an equilibrium with rationing)의 개념을

제안, 검토한다. 이러한 배급하의 균형의 성격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는 수요와 공급에 대하여 실제 거래량으로서 구매와 판매 (purchase and sale)의 개념을 제기한다. 가격이 신축적인 왈라스균형하에서는 수요와 구매, 공급과 판매가 서로 일치하지만 고정 가격 및 수량조정 균형에서는 이러한 일치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배급하의 균형도 세가지의 유용한 균형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는바 첫째로 각 시장에서 구매의 합이 판매의 합과 일치하고, 둘째로 (시장경제하에서 아무리 개인의 의향에 반하여 거래를 강요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구매는 그의 수요를 능가할 수 없고 판매는 공급을 능가할 수 없으며, 셋째로 만일 어떤 시장에서 배급된 구매자가 존재한다면 동일 시장에서 배급된 판매자가 존재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성질 또는 요건등이다. 이러한 배급하의 일반균형의 엄밀한 개념과 존재의 증명에 대하여는 논외로 하고(이에 대하여는 E.Malinvaud and Y.Younes(1977), "Some New Concepts for the Microeconomic Foundations of Macroeconomics" in The Microeconomic Foundations of Macroeconomics, edited by G.Harcourt 그리고 J.P.Benassy, "Neo-Keynesian Disequilibrium Theory in a Monetary Economy"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October 1975 참조) 수요 또는 공급, 거래 그리고 인지된 계약간의 상호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어떤 재화의 주어진 수요와 공급하에서 배급기구는 거래를 결정한다. 그 재화시장의 상황과 수요 또는 공급 그리고 구매 또는 판매를 고려하여 각개인은 시장의 작용을 제약하는 시장제약을 인지한다. 이러한 일련의 제약을 인지한 각개인은 각시장의 수요 또는 공급을 차례로 결정한다. 이러한 세쌍의 수량이 서로 일관성을 가질 때에 균형이 이룩된다.

이어서 그는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의 수급상황이 판매자시장이냐 또는 구매자시장이냐에 따라 세가지 유형의 균형 즉 케인즈적 실업, 고전학파적 실업 그리고 억압된 인플레이션 (Keynesian unemployment, classical unemployment and repressed inflation) 균형을 개념과 특질을 논의한다. 케인즈적 실업균형은 두 시장 모두에서 공급자가 배급되는 경우이고, 고전학파적 실업균형은 노동은 완전히 고용되지 않으나 기업은 공급량을 모두 판매하는 경우이고, 끝으로 억압된 인플레이션균형은 모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초과하여 인플레이션압력이 나타나지만 단기의 가격경직성으로 인하여 인

플레이션이 다소 억압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세가지 경우 모두 배급상황에 직면하는바 케인즈적 균형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억압된 인플레이션하에서는 재화시장에서, 그리고 고전학파적 실업균형하에서는 모든 시장에서 배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소위 케인즈 혁명이란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한 유형의 단기균형에서 다른 유형의 단기균형으로 강조점을 이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제 2 장에서는 단기균형과 정책 (a prototype for the analysis of short-run equilibrium and policy)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Barro and Grossman의 논문에서 소개된 것과 흡사하지만 보다 특정한 단순한 수리적 이론 모형을 설정하여 소비자와 생산자의 분석을 통하여 앞서 언급한 세가지의 균형과 단기적인 고용이나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정책효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우선 모형경제의 윤곽을 보면 그 구성은 소비자들과 생산자들 그리고 자치부분인 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 화, 노동 및 화폐의 세개의 재 화를 다루고 있다. 재 화시장의 균형조건은 재 화의 생산이 소비자의 소비수요와 정부지출(기업의 자발적인 투자지출 포함)의 일치를 말하고,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임금소득은 소비지출과 저축의 합이며, 화폐시장의 균형조건은(화폐이외의 자산이 없으므로) 저축인 소비자의 화폐보유증가분과 이윤인 생산자의 화폐보유증가분의 합이 화폐공급의 증가분과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서 소비자 및 생산자의 활동과 이에 상응하는 배급의 작용과 인지된 시장의 제약방식에 대하여 검토한다.

소비자의 선택은 예산제약식과 비부제약하에서 주어진 효용함수를 극대화함으로써 재 화와 화폐의 수요와 노동의 공급을 결정한다. 배급과 시장제약이 없는 경우와 배급이 있는 경우를 동시에 검토하는바 전자는 왈라스균형을 검토하기 위한 경우이고 후자는 세 개유형의 단기균형을 검토하기 위한 것인데 재 화시장에서 배급이 있을 때와 노동시장에서 배급이 있을 때 그리고 두시장 모두에서 배급이 있을 때를 각각 검토한다. 노동시장에서 배급이 있을 때에는 고용된 근로자는 배급이 없는 경우와 같이 소비하고 일부의 실업자는 노동공급이 영이라는 부가적인 제약식을 가지는 상태에서 소비를 선택하며 케인즈적인 실업을 일으킨다. 재 화시장에서 배급이 있을 때에는 고용된 노동자의 소비가 배급되며 억압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두 시장 모두에서 배급이 있을 때에는 소비자

는 재화의 수요와 노동의 공급이 배급되며 고전적 실업을 일으킨다. 생산자의 선택은 단위노동요구에 의거하여 가장 효율적인 기업순으로 주어진 생산함수에 따라 생산에 임하며 케인즈적 실업하에서는 산출량과 고용이 유효수요에 따라 결정되며, 고전학파적 실업하에서는 기업은 배급되지 않고 순수익을 극대화하며 이에 따라 재화공급과 노동수요를 결정한다. 억압된 인플레이션하에서는 생산된 재화가 전부 판매되고 판매량이 노동수요를 결정한다.

정책수단으로서의 정부지출의 변화, 가격 및 임금의 변화, 그리고 가격 또는 임금의 변화가 고려되고 정책효과로서는 고용된 노동자의 효용수준, 실업자의 효용수준, 그리고 실업율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의 효과를 세가지의 균형에 미치는 단기의 효과를 각각 분석한다.

제 3 장에서는 중기의 정책 (unemployment and medium-term economic policy)에 대하여 검토한다. 우선 세가지의 균형이 나타나는 조건을 분석한다. 각각의 균형이 나타나는 조건을 고려하면 물가-임금좌표공간에 왈라스균형과 아울러 각균형이 나타나는 영역이 설정되는바 개략적으로 보면 케인즈적 실업은 주어진 자발적 수요하에서 소비자의 명목자산에 비하여 물가가 너무 높을 때에 나타나고, 고전학파적 실업은 실질임금이 너무 높을 때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며, 억압된 실업은 가격과 임금이 너무 낮아서 자산이 큰 구매력을 가지고 또한 노동자의 여가수요가 클 때에 나타난다.

외생변수가 변하면 균형영역의 경계선이 이동할 것인바 예로 정부지출이나 소비자의 자산이 증가하면 경계를 북서쪽으로 이동시키는, 기술진보 등에 의하여 단위노동요구량이 감소하면 경계가 동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유류과동과 같이 단위노동요구량이 증가하면 서쪽으로 이동하여 원래의 왈라스균형점이 다른 균형으로 바뀌게 된다.

가격기구의 경직성과 균형과의 관계로 보아 저자의 지적은 불변가격가설은 실업과 같은 단기현상을 다루기에 적합한 반면에 순수 가변가격가설은 성장과 장기변동에 적합하다는 것이며, 따라서 케인즈류의 이론은 전자의 근거를 제공하고 고전학파류의 이론은 후자에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본장에서의 주요 결과는 첫째로 단기의 파동은 인플레이션과 케인즈적 균형으로 흐르

는 경향이 있고, 둘째로 물가와 임금간의 관계는 왈라스균형에 비하여 더 낮은 실질임금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셋째로 물가와 임금은 초과공급에 비하여 초과수요에 더욱 신속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가지며, 끝으로 실제의 임금과 물가는 그들의 중기경로에 비하여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결론은 첫째로 정상적 상황 하에서는 케인즈적 실업과 억압된 인플레이션이 번갈아 나타나되 전자의 기간은 후자에 비하여 더 오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둘째로 노동자당 산출량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사회불안 등으로 실질임금이 급상승하면 고전학파적 실업이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본서는 이후의 신케인즈학파의 이론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던 바 예로 J.P.Benassy(1982), *The Economics of Market Disequilibrium*(New York:Academic Press), D.Gale(1983), *Money in disequilibrium*(Cambridge:Nisbett), J.T.Cuddington et al.(1984), *Disequilibrium Macroeconomics in Open Economies*(Oxford:Basil Blackwell) 등의 저서를 포함하여 수많은 저작에 영향을 미쳤다.

본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실업은 케인즈적일수도 있고 고전학파적일 수도 있고 실업대책도 실업의 유형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인바 저자의 진단과 같이 석유파동이라는 실업이 고전학파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문제가 고전학파적이 아닌가 여겨지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의 실업대책도 케인즈적이 아닌 고전학파적인 처방이어야 할 것이라는 시사점이다.